



강화군, 남산·관청 공원… 테마공원으로 탈바꿈

남산근린공원… ‘은하수(水)가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

관청근린공원… ‘자연 속 감성공간! 아트 관청’

강화군이 강화읍에 위치한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을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된 두 공원에 각각의 테마를 부여하여 야간 조명 설치 등 공원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남산근린공원은 ‘은하수(水)가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이라는 테마로 공원 구역을 7개 테마로 나누어 ①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 건강길, ②무지개 다리, ③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를 걷는 듯한 은하수길, ④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조명과 단풍길로 꾸며지는 추억길, ⑤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들꽃길, ⑥수피가 아름다운 자작나

무숲길, ⑦강화읍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철쭉동산으로 조성한다.

새로운 테마로 조성된 남산근린공원은 9월 완료 계획이다.

아울러, 관청근린공원은 ‘자연 속 감성공간-아트 관청(Art.GwanChung)’이란 콘셉트로 탈바꿈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테마로는 강화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강화 조형 쉼터, 계절별 다양한 초화가 있는 여름 수국원, 시원한 미스트가 뿌려지는 조형 포그길, 밤하늘 별이 수놓은 별바라기 전망 언덕, 남녀노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원 힐링터와 졸졸 계류길을 기획 중에 있다.

관청근린공원 테마공원은 내년쯤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안으로 사업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각의 공원에 저마다의 특색을 입혀 주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산·관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길상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2024년 강화군 공원분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최백하 기자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관청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남산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남산



진입 관문 경관개선은 군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사업 강화군, 강화대교~강화읍 진입도로 경관 개선 추진계획



강화관문 진입도로 경관개선 계획 보고회

강화군이 24일 강화대교 ~ 강화읍 방향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경관개선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로변에 설치된 노후 안내판은 일괄 교체한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유도 후 미이행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은

군의 특색을 반영한 등으로 교체하고, 보행자 도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강화관문 진입도로는 월평균 5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강화의 첫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48번 국도 이관에 따른 관리 주체 불명확으로 관리가 미흡해 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도영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과장, 강화읍장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입도로 경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공유하며,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해 강화군에 발을 딛는 순간 감동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강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방문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진입 관문의 경관개선은 강화군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시경관 향상과 더불어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 다할 것 강화군,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실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 실시

강화군이 지난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총 26종의 재난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한 재난유형으로는 최근 아파트 및 공장 등 대형 건물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 군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 시설 대형화재”로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맞춰 각 상황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구의 임무와 역할 ▲강화군 재난관리체계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매뉴얼 상 유관기관(소방, 경찰 등)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 행동매뉴얼 활용 방법과 시스템 관리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고근정 안전산업국장은 “이번 행동매뉴얼 교육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난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벼, 밭작물, 과수, 인삼 등 관리 방법 소개 강화군,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폭염 작물관리

강화군이 장마 이후 높은 습도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관리 방법을 홍보하며 당부에 나섰다.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특보가 발효된다. 이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작물별 피해 방지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벼는, 꽃 피는 시기에 생육 최고온도가 35℃ 이상이 넘지 않도록 논물이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고,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하거나 짚·풀 등으로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과수는 과실 비대나 착색이 불량하므로 미세 살수장치를 이용하거나, 수관 상부에 차광막을 씌워 주고, 인삼은 울타리 차광막을 걷어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해가림 시설에 흑색 2중직 차광막을 추가 설치하여 인삼 밭 내 온도를 내리는 것이 좋다.

또한, 시설 하우스는 적절한 수분 관리와 환기창, 유동팬을 활용하여 시설 내 공기 순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차광도포제를 뿌려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계속된 장마 후 폭염에 대한 사전 대비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목별 세심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인은 아침이나 저녁의 선선한 시간에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입고 농작업을 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강화군, 본격 휴가철 동막, 민머루 해변 안전점검



강화군, 민머루 해변 안전점검

강화군이 지난 29일, 동막과 민머루 해변 등 강화군 주요 해변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막과 민머루 해변은 지난해 7~8월 개장 기간 동안 29만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서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 강화군의 대표 해변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현장 점검에서 강화군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수상안전요원의 빈틈없는 안전감시 활동을 지시했다. 또한, 마을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해변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군은 해변 개장 이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변 상시 순찰, 수상안전요원 및 119 수상구조대 배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해변 방문객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강화군의 해변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해변을 관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번 여름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강화군,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및 비상대비 현안사항 회의 개최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이 29일 영상회의실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북방송 재개 등 비상대비 현안사항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읍·면 부(읍)면장 및 각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했으며,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위협과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처리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지역 소식을 보고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초동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각자 위치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배충원 의장, “강화군 관광시대 열어나갈 것”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현장 방문



배충원 의장,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현장 방문



배충원 의장,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현장 방문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현장 방문 군과 의회가 힘을모아 강화군 관광시대 열어나가기로 당부 강화군 부스 찾아 직원 격려

배충원 강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9일(금)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 강화군 부스를 찾아 군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서울&경기 참관객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관광명소&여행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국내외 관광네트워크의 장으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여행 및 관광 관련 기업·단체·협회 등 2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약 500개 부스가 참여하고 있다.

본 관광박람회에 참가한 강화군은 지정된 부스에서 4일간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 및 특산품,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을 홍보할 예정이고, 이에 배충원 군의장은 강화군 홍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차 강화군 부스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 날, 군 관계자는 “군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강화군이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장은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직원을 격려하며, “군과 우리 의회가 함께 힘을모아 강화군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라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 방문



강화군의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 방문

강화군의회(의장 배충원)는 19일 강화군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20시 30분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및 토사유실, 나무전도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초등학교 담장, 갑곶리 그랑드빌 아파트 주차장 옹벽 및 외포리 허가지 보강토 옹벽 붕괴 현장 등을 방문하여 피해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충원 의장은 “기상이후로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피해 원인을 조사해달라”며,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연구회’(대표 의원 오현식)는 지난 13일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중앙시장 B동에 위치한 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에서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지역 이동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역 내 취업 활성화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청년공간 유유기지 강화 개소에 따른 시설 소개도 이루어졌다.

한편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연구회’는 올해 6월 발대식을 갖고 청년들의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오현식 의원은 “강화에서 청년들이 떠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회 진출 후 청년들이 강화에 남아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청년 정책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화군의회, 강화군 의료 발전을 위한 사랑방간담회 진행



강화군의회, 사랑방간담회 열어 의료 발전 도모

강화군의회(의장 배충원)는 지난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료법인 성수 의료재단 비에스종합병원(병원장 김종영)과 사랑방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비에스종합병원 측의 강화군 의료 현황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과 함께 지역 의료 발전방안과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젊은 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소아청소년과의 개설 등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종영 병원장은 2018년 개원 이래 종합병원의 성과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지역 의료시스템의 완결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소아청소년과 개설' 등 강화군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배충원 의장은 "강화군의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진에 감사드리며, 강화군민의 의료체계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종합병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전했다.

사랑방간담회는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분야를 막론하고 강화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의회, 강화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 민관 간담회 강화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해외에서 브랜드 가치를 지닐 것



강화군의회, 강화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 간담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배충원)는 지난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강화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흥열 의원과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청,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과 (재)한국갯벌세계유산추진단 직원 및 민간단체인 강화갯벌 세계유산 추진 준비모임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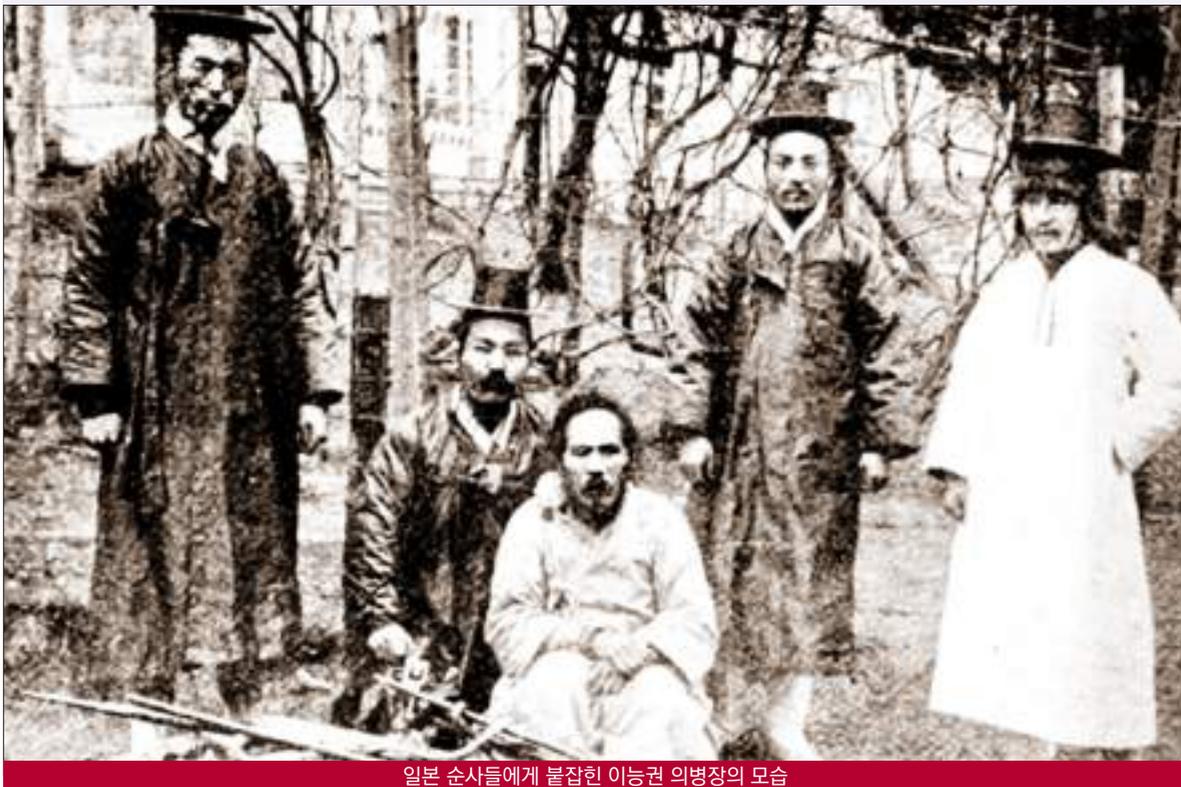
회의 안건으로는 ▲강화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목적 및 필요성 ▲민간 차원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후보지 제안 ▲세계유산 지정 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박흥열 의원은 "기준에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를 유산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유산 구역 지정 후에도 지역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없게 한다는 것이 현재의 정책 방향이다." 또한 "강화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해외에서도 찾기 드문 브랜드 가치를 지닐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이능권 독립지사(건국훈장 독립장) 유족 115년만에 세상에 빛을 보다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힌 이능권 의병장의 모습

강화군 태생으로 한말의 의병장을 지내셨으며 대한제국 군대의 육군대장을 역임하시며 항일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과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하러가는 이준열사 일행을 호위해 일본군의 감시망을 뚫고 국외로 호송을 성공시키신 공로 등 일생을 항일과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이능권(1864~1909) 독립지사의 유족을 115년에 찾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에서 평생을 살고계시는 안종진(89세)님으로 이능권 지사의 외손자 이시다.

이능권지사님 사후 115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조사결과 안종진님만이 홀로 생존해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렵게 유족이 발견되기까지는 여러사람들의 각별한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당초 강화군광복회(회장 이응식)에서 독립운동가 유족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익히 듣고 알고있던 전 강화군청 공무원 출신 강규동(67세)씨가 강화읍 동락천 풍물시장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의 역사인물 홍보용 패넬을 유심히 관람하던중 이능권 지사님의 패넬을 보고 이런 훌륭한 분이 강화에서 나셨는데 그 자손들은 누굴까 궁금해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풍물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안엽태(63세)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바로 우리 외증조부님이 되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때부터 강규동씨가 외증손자 안엽태씨를 데

리고 길상면사무소와 강화읍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이능권지사님의 호(재)적을 힘들게 발견했으며 또한, 이능권 지사님의 문중을 직접 방문하여 족보와 가계도, 관계기관 진술서등을 확보한 후에 강화군광복회 문경신 사무국장과 함께 인천 보훈지청 장선미팀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기어히 국가보훈부에 유족신청을 하게 되었다.

노심초사 많은분들의 정성이 통했는지 이후 2024년 6월 17일 이능권 지사님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추서 되었으며 드디어 2024년 6월 26일 안종진님께서 유족으로 인정을 받았고 명예로운 강화군광복회원이 되셨다.

이능권 지사님의 유일한 유족이신 안종진님은 여생을 마감해야 할 시기에 천운으로 할아버님의 자랑스런 후손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으시다며 그동안 어렵게 지나온 날들을 눈물로 회고하시며 어릴 때부터 독립군 자식이라고 마을에서 멸시를 당하고 친척들 까지도 일제치하의 후환이 두려워 문중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는 명절날에도 만남조차 꺼릴정도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다는 말씀을 이제는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하실수 있다고 긴 안도의 한숨을 쉬시기도 하셨다.

강화군광복회 이응식회장은 115년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된 이능권독립지사의 유족이신 안종진님과 가족, 이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후손과 유족찾기 운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화군복지재단, 인천시 간호조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강화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내에서 실시 확정

강화군 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은 지난 23일 인천시 간호조무사회(회장 이해연)와 강화군 간호조무사 교육복지 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강화군 사회복지시설과 병·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교육 이수를 위해 인천 시내까지 나가야 해 거리적·시간적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재단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시설 4개 SMG(Small

Meeting Group)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재단은 이를 적극 검토해 교육을 개설하게 됐다. 재단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이해연 회장은 “재단 덕분에 강화군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고 전했다.

오윤근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까지 교육을 확대 개설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화군민 누구나 교육 및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화군 복지재단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조피볼락 종자 60만마리 주문도 해역에 방류



조피볼락 종자 방류

강화군이 수산 종자 방류사업으로 조피볼락 종자 60만 마리를 주문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방류 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자원을 증강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강화군에서도 어족자원의 고갈로 힘든 지역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군 연안 바다 중심으로 올해도 5월 점농어 종자 27만 마리를 주문도 해역에 방류했고, 지난 18일에는 어린 꽃게 82만 마리를 군 해역에 방류하기도 했다.

군은 수산 종자 방류 후에도 주변 어업인들에게 종자 방류 효과와 어족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류한 치어(치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정 어구 사용 제한과 불법어업 근절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해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와 수산자원 조성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대대적인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체육시설 136개소, 야외운동기구 242개소,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안전한 생활 체육환경 제공



체육시설점검



체육시설점검

강화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군청 및 읍면 체육담당자, 군 체육회 직원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했으며, 점검대상은 공공체육시설 87개소, 신고체육시설 47개소, 야외운동기구 242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체육시설 안전기준 준수 △소방시설 정상관리 여부 △위생기준 준수여부 및 야외운동기구의 △파손 또는 훼손 사항 △안내표지판 및 주의사항 문구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취약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체육시설 점검도 그 일환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하계휴가, 추석명절, 군수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강화군, 여름 휴가철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강화군이 하계 휴가철 및 보궐선거 등에 대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감찰에 나섰다.군은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추석 명절, 강화군수 보궐선거(24.10.16.) 일까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복무점검과 함께 청렴의무 위반행위, 업무처리 지연 및 소극 행정, 음주운전·도박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감찰 결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군수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공직감찰로 비위 발생 요인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분석해 공직사회의 청렴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온라인셀러」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8월 7일까지 모집,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 교육 커리큘럼 제공



창업일자리센터 온라인셀러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 이하‘센터’)는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분석 및 판매자 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셀러」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쇼피·이베이 등 해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실습부터 온라인 홍보 마케팅 노하우, 지식 재산권 관리, 해외 수출 관련 세금 기초까지 학습하게 된다. 또한, 초기 셀러로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배송비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며, 실질적인 매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센터는 2024년 상반기에 글로벌셀러 기초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1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강서진님은 센터 교육 수강 이후 이베이(ebay)의 TOP 셀러가 되어 이번 교육에서 교육생 실습을 돕는 보조강사로 참여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화군민,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여성 등으로 12명 내외로 모집하며, 9월 4일 개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32-93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윤정혁 센터장은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농업인이면 매주 무상으로 공급

강화군, 장마·폭염으로 약해진 농작물, 농업미생물로 관리



강화군, 농업미생물 무상 공급



강화군, 농업미생물 무상 공급

강화군이 장마 이후 고온의 날씨로 작물 재배에 불리한 시기인 요즘, 농업미생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홍보에 나섰다.

많은 비와 기습 폭우는 작물의 생육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고온의 날씨도 농작물에 큰 스트레스가 된다. 따라서 장마 이후에는 작물이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군에 의하면 이런 시기에 농업미생물을 활용하면 작물의 활력 회복 및 병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작물 뿌리의 활력을 높이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해 작물의 생육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농업미생물 살포시 주의할 점은 500~1,000배액으로 희석해 살포하되 아침저녁 선선할 때 뿌려주는 것이 좋다. 바로 살포가 곤란한 농

가는 저온저장고(4~5℃)에 저장해 2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농업미생물은 강화군 농업인이면 매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생물

활용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경영비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농업미생물을 적극 활용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신청 안내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 930-4166, 4136

분 양 일 ▶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매주 경종 농가는 최대 40L, 축산농가 60L, 일반군민은 5L까지 공급

배준영 의원, '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40억 원 확보

중구 10억 원, 강화 15억 원, 옹진 15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지역현안수요 예산 24억 원, 재난안전수요 예산 16억 원 확보

배준영 의원,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 교부세 확보 성공,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대비 확실히 이뤄지도록 할 것"



배준영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월30일(화), 총 40억 원 규모의 '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인천 중구 10억 원, 강화군 15억 원, 옹진군 15억 원씩 배정됐으며, 유형별로는 지역 현안수요 예산 24억 원, 재난안전수요 예산 16억 원이다(이하 '현안', '재난' 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중구는 6개 사업 신청 대비 4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강화군은 4개 대비 3개 선정, 옹진군은 3개 신청 전체가 반영, 총 13개 사업 중 10개가 반영돼 지역 발전과 재난 대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 중구의 경우 ▲만조시 침수가 빈발했던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 데크길 구축 5억 원(현안) ▲2000년대 조성돼 노후화가 심한 영종국제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원(현안) ▲야간·악천후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서동 일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1.5억 원(재난) ▲CCTV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포동 지능형 CCTV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1.5억 원(재난)이 각각 확보됐다.

강화군에는 ▲범죄·재난 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7억 원(현안) ▲군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4억 원(재난) ▲산불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4억 원(재난)이 교부됐다.

옹진군은 ▲장골 해수욕장 인근 침수·약취를 해결하기 위한 군도61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10억 원(현안) ▲도로결빙을 막기 위한 북도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억 원(재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북도면 장봉리 제설창고 설치공사 3억 원(재난)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 정부를 설득한 결과 총 10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냈다"며 "확보된 교부세를 통해 지역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고 재난안전 대비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인천발 KTX 현장 방문, 적기 개통에 총력

26일 건설 현장 찾아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발 KTX 적기 개통에 총력 추진
철저한 공정 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관리에도 최선



인천광역시, KTX 사업 현장을 방문 진행 상황 면밀하게 점검

인천광역시가 지난 26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발 KTX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과 협력해 인천발 KTX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해 송도역을 출발,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이 편리하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부산 간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인천~목포 간은 2시간 1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동안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이나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약 1시간 30분이나 이용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확고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필 부시장은 "전국 광역시 중 KTX가 연결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인천시민 염원에 부응하도록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정 관리와 함께 안전 시공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TX 연결망이 없는 인천을 비롯하여 안산,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KTX 개통을 갈망하고 있는 만큼, 최고 수준의 공정 관리와 신속한 장비투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노반 토목공사 완료, 열차 시운전 개시, 정거장 건축 준공 등 공정별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유 및 홍보하여 개통과 관련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정진기자

기고

강화 항일의병과 진위대

이경수



강화 전쟁박물관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요. 쌀도 떨어졌고요. 소년은 물어 물어 멀리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돌아가라고만 합니다.

아버지 아랫사람이 딱하게 여기고 몰래 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에 쓰고 쌀도 좀 사라고 했겠지요. ‘어휴, 이제는 엄마에게 약도 밥도 드릴 수 있겠구나.’

소년의 안도는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소년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나서 뜨거운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이 나쁜 아버지, 그이 이름이 연기우(延基羽)입니다. 강화 진위대 출신, 항일 의병장이예요. 어느 아비에게나 자식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연기우는 나라를 구하려고 자식마저 내쳤습니다. 병사들 먹이고 무기도 사야 할 군자금이라서 한 푼도 사사로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손에 들린 돈을 빼앗은 겁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연기우는 여전히 싸웁니다. 독립군이 되어 곳곳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다가 그렇게 하늘로 갔습니다.

항일의병, 독립군,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신돌석, 홍범도, 김좌진, 이름도 기억합니다.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이름 석 자 교과서에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의병을, 독립군을 떠올립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 죽고 살고 그런 걸 떠나서, 독립이라는 열망 하나로 저 차가운 만주로 향했던 사람들. 누가 가라고 권한 것도 아닌데,

강제한 것도 아닌데, 보상이나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독립군이 된 사람들. 실로 위대합니다.

항일의병과 일본군의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 한 서양인이 우리 의병을 만났습니다. 의병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과를 떠나 그 거룩한 동기에 숙연해집니다.

1945년, 망했던 나라가 되살아났습니다. 세계 대전에서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몸 바쳐 일제에 맞섰던 독립군의 피와 눈물이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광복된 조국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주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면당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깨 힘주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광복된 조국은 일제에 빌붙어 자기들 이곳만 챙기던 이들이 여전히 평평거리는 세상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호의호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하나, ‘친일파’ 문제입니다. 현시대는 어떠한가요?

강화진위대

강화 진위대원들이 “기세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올 때 울리는 나팔과 북소리는 아침밥을 끓이는 처녀들이 밥 넘는 줄도 모르고 사립문 틈으로” 내다보게 했다는 표현이 저는 맘에 들어요. 그래서 자주 인용합니다. 1994년에 강화문화원이 펴낸 《증보 강화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처녀들만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처마 밑에 줄지어 서서 진위대 행렬을 바라보며 심

글병글, 대견해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진위대가 있었는데, 그중 강화진위대가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강화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일본군들도 이례적으로 강화진위대를 ‘군기(軍紀)가 정립되고 기개도 있었다.’라고 평했습니다.

진위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알아보지요.

1895년(고종 32)에 고종은 서울에 진위대, 평양과 전주에 진위대를 설치합니다. 1896년(고종 33)에는 강화도 등에 지방대를 둡니다. 진무영에 이어 ‘근대적’ 군대인 강화지방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지방대는 강화 외에 수원, 청주, 공주, 광주(光州), 대구, 안동, 고성(固城), 해주, 황주, 안주, 원주, 북청, 종성에 있었습니다.

“지방의 각 군대를 진위대라 하기도 하고 지방대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은 군용(軍容)을 일정하게 하는 법도가 아니니, 모두 진위대라고 부르게 하라.” 《고종실록》

1900년(고종 37)에 고종이 이렇게 명했습니다. 진위대, 지방대, 군이 나눌 것 없이 호칭을 모두 진위대로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지방대가 강화진위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03년(고종 40)에는 이동휘 참령이 강화진위대 대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1907년에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당하고 맙니다.

임진왜란(1592) 때로 잠시 가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용의주도합니다. 조선을 치기 전에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조선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 자기네가 이긴다고 확신했기에 쳐들어왔을 겁니다. 이기기 어렵다고 여겼으면 그냥 주저앉아 다음을 기약했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패했습니다. 사전 분석에서



강화전쟁박물관 걸개그림



이동휘와 강화진위대

농친 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수군을 놓쳤고, 조선 백성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관군을 아무리 격파하면 뭐합니까. 곳곳에서 의병이 덤벼드는데요. 1910년에 조선을 강탈한 방법은, 임진왜란처럼 일시에 대군을 보내 밀어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간 그때처럼 낭패를 볼 것입니다.

일본이 택한 전략은 조선(대한제국)을 야금야금 죽이는 것입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부터 빼앗고(1905), 고종을 폐위시키고(1907),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을 빼앗고(1909), 경찰권을 빼앗고(1910) 이어서 국권 피탈. 이렇게 대한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해산을 거부한다!

강화진위대는 군대 해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1907년 8월, 연기우 등 병사들은 무기고를 깨부수고 총을 들었습니다. 강화주민 수백 명이 합세했습니다. 함께 무장한 그들은 갑곶에 매복했다가 상륙하는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일본군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지만, 강화 봉기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따다다다”, 기관총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임진왜란 때는 난생처음 보는 조총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기관총입니다.

결국, 일본군은 강화읍내를 장악합니다. 자기네 병사 죽은 분풀이인가, 살육을 자행합니다.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주민과 진위대원들은 몸을 피합니다. 그들 상당수가 항일의병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강화 안에서도 싸우고 강화 밖으로 나가서도 싸웠습니다.

의병 아닌 척, 그냥 농부인 척 살다가 몰래 모여 일본군을 공격하고 다시 농부인 척 사는 의병들도 있었습니다. 총을 집에 두면 위험하겠죠. 강화 의병들이 평상시에 무기를 감춰두던 곳 가운데 하나가 여기저기 많았던 고인돌이었습니다. 산속 절에 무기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의병장 중에 이능권(李能權, 1864~1909)이 있습니다. 강화읍 국화리 출신으로 서울 시위대 군인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살 때 진위대가 봉기하자, 이능권도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능권 의병부대는 모래주머니 차고 산으로 달리는 훈련을 하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신출귀몰하면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1908년 10월에는 정족산성(삼랑성)에서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단군의 보살핌이었을까요, 병인양요(1866) 때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었죠.

일본군은 정족산성 전투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30일 오전에 강화 광성에 상륙하여 정족산 전등사에 웅거하고 있는 폭도 100여 명과 총돌, 밤낮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31일 밤 강화부로 퇴각, 증원대의 도착을 기다렸다.”

일본군 증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복수를 베풀며 다시 정족산성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성은 텅텅. 이능권 부대가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본군, 약올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전국에서 의병들이 활약했으나 기우는 나라를 바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그때 강화에서도 거대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화전쟁박물관에 갈래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갑곶돈대 강화전쟁박물관에서 특별한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강화에서 피어난 독립의 불꽃’입니다. 7월 16일에 시작됐고요, 12월 29일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기획전시가 있을 때마다 강화전쟁박물관에 갑니다. 갈 때마다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실내 전시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이번에는 2층 제4전시실 전체를 특별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분들의 땀과 정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화의 3·1운동을 중심으로 항일의병과 근대교육을 소개합니다. 강화군광복회가 제작한 ‘강

화소년가’가 잔잔히 흐르는 역사공간에서 이동휘, 조봉암, 유봉진, 황도문, 오영섭 등을 만나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 위기에 빠진 합일학교를, 전 재산 털어 살려낸 최상현·오함나 부부도 볼 수 있습니다. 합일초등학교에 소장된, 백범 김구의 ‘弘益人間’ 글씨가 이곳에 외출 나와 관람객을 맞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시물과 설명글을 찬찬히 둘러보고 나면, 1919년 그 뜨거웠던 강화의 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신 김에 진해공원에도 둘러보세요. 갑곶돈대 주차장 입구 작은 숲을 진해공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순국열사 연기우 의병장 공적비(殉國烈士延基羽義兵將功績碑)’가 있습니다.

앞에서 연기우가 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여기 연기우 공적비에도 같은 내용을 새겼습니다.



연기우 공적비

기고 강화 주민 울리는 3000번 버스...인천시·강화군은 '허당'인가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3000번 버스. 강화에서 출발해 김포를 거쳐 서울 신촌까지 갔다 돌아온다. 강화 주민들이 서울로 직접 갈 수 있는 대중 교통 수단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이다. 강화 주민들의 실질적인 발노릇을 해 고맙기 그지없다. 연간 20만명 넘게 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통계도 보인다. 아, 그 3000번 버스가 탈이 났다. 그동안 23대가 운행돼 왔는데 7월부터 8대로 확 줄어들었다. 이제 강화 주민이 3000번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나가려면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한다. 아무 생각없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나갔다가 눈이 빠지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강화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행 대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지난해 5월 법제처는 김포시 소관인 3000번 버스 기점을 다른 지자체인 강화에 두는 것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는 일반 국민에게는 아주 낯선 기관이 있다. 여기서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3000번 노선 기점을 경기도에 뒤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시, 경기도, 운수업체 등과 협의해 강화에서 출발하는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협의 결과 기존

3000번 버스 23대 중 새로운 3000번 노선(강화터미널 기점) 버스 8대는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3000-1번 노선(김포시 기점) 버스 15대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참으로 희한한 결정이고 이해 못할 법령 해석이다. '수도권 30분' '전국 2시간대'의 교통혁명이 눈앞에 펼쳐지는 요즘 세상에 버스 출발 기점을 김포에만 뒤야한다는 논리는 대체 무엇인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그것이 강화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뻔한 사실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었나. 대책을 마련한 시간조차 주는 건 무리였다. 법제처와 대도시광역교통위의 결정은 그렇다 치고 인천시 교통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 1년간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년전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같이 일이 벌어질지 인천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만 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며 면피에 급급이다.

강화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화군청 공무원들의 책임도 적지않다. 주민의 불편이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데 군에서는 1년 넘게 무슨 대책을 세우고 인천시와 얼마나 협의를 했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군수가 유고라는 사실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자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바탕 쇼를 벌였다. 지난 10일인 강화터미널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현

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우선 김포시 구간 정류소를 대폭 줄여 운행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김포한강로를 이용하는 급행화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이런 일이 가능하면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지 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강화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가 약속한 급행화 노선 신설과 차량 추가 증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노한 강화 주민들은 이같은 립서비스에 혹하지 않는다.

21세기 대한민국 수도권은 이른바 '교통혁명' 시대다. 날로 전철이 연장되거나 확충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신설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대북 접경지인 경기도 연천까지도 전철이 가는 세상이다. 수도권은 어디든지 30분대로 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홍보가 귀에 가득하다. 그런데 강화군은 수도권이 아닌가보다. 그냥 시골 섬이니 알아서 다니라는 뜻인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눈과 귀가 혹하는 청사진을 수시로 내놓는다. 만일 청사진대로만 된다면 인천시는 그야말로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글로벌 도시가 된다. 1년전부터 강화군이라는 시골(?)에 버스 운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실은 유시장의 청사진에 들어있지 않았다. 아마도 공무원들이 지엽적인 문제라 스스로 판단해 유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

강화경찰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관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교통정책 운영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강화군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

가 필요한 취업·결혼이민·유학 등 목적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이거나 체류가 예상되는 외국인 등록자중 희망자를 모집, 총 9명을 선발하여 6월에서 7월까지 6주동안 실시하였다.

개강 기간 교통경찰이 직접 학과교육과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 대비 도로교통법 및 보행수칙 등 교통안전교육과 외국인 범죄 피해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수강한 수강생들은 "낯선 타지에서 운전면허가 없어 이동하는데 불편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친근한 교통경찰상 구현과 함께 강화군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서정진 기자

기고

강화의 내일을 위한 염원 (강화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도자)



신득상
전) 강화군의회 의장

오는 10월 16일은 강화군수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강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이 강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내일의 영화를 구현할 실질적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청년 시대로 접어든 지방자치체제의 지도자는 모름지기 성숙해야 한다.

성숙한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갈고 닦고 현장 경험이 몸에 배어 일머리를 이해하는 숙련된 실무책임자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강화군의 목은 체증을 말끔히 해소하고 내일의 번영을 가져올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행정 경험이 풍부

하고 조직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리더형이어야 한다.

강화군의 면적보다 작은 이웃 김포시의 인구는 50만을 넘고 바야흐로 80만 인구 도시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 다리 하나 사이이고 인프라도 다르지 않은 형국인데 발전 속도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 강 건너 파주는 언급할 이유도 없다. 한 해 살림살이 규모인 예산도 이웃 김포나 파주에 비해서 턱없이 작다. 강화의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 해 예산이 적어도 지금의 두 배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강화의 지도자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발전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회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강화군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니 뭐니해도 예산이 있어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보궐선거이고 선출 후 보장된 임기가 20개월에 불과한 만큼 행정 실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행정 경험자의 숙련된 경륜이 절대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전임자들의 위정이 바람직하지 않아 다른 자치단체에 비견해 발전 속도가 현저하게 늦춰진 우리 강화에, 초보 운전자나 기초 단체, 소규모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부인 일천 한 경력의 소유자의 무임승차는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고도인 우리 강화 또한 단시일 안에 형성된 역사 문화의 보고(寶庫)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필자의 기고문이 영원히 지속될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강화의 마중물이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고 품격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인천강화교육지원청, 강화 결대로자람학교 학교장 및 담당교사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강화군,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큰 호응 군 홍보 센터에 총 19,000명 방문 쾌거



학교장 및 담당교사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강화교육지원청은 17일 강화 초·중 결대로자람학교 학교장 및 담당교사,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파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2024 상반기 강화 초·중 결대로자람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타시도의 읍·면지역 작은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미래교육의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의회에 참가한 결대로자람학교 담당교사는 "혁신미래교육에 대해

각 학교가 가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특히 인구 구조와 지리적 위치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타시도 학교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결대로자람학교의 핵심 가치는 '존엄'과 '공존'이라며, "강화의 혁신학교가 각 학교의 '결대로' 성장하며 다른 학교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 간 네트워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기자

강화군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강화군을 포함하여 국내외 지자체 및 기관, 업체 등 총 229개 업체가 참가해 저마다의 열띤 홍보를 펼쳤으며, 강화군 홍보센터에 방문한 관람객은 무려 1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홍보센터에서는 관람객들 대상으로 천문과학관, 함상공원 등 신규 관광지 소개와 함께 소창, 강화섬쌀, 화문석, 사자발 약쑥 등 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등 강화군 공식 SNS를 구독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강화의 신규 관광지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군에서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부스 운영

인천강화경찰서, 상습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동작감지 센서벨 지원



인천강화경찰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동작감지 센서벨 지원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관내 상습 실종 치매어르신 대상 동작감지 센서벨(출입문 차임벨)을 적극 배부하여 실종자 예방·조기 발견 등 주민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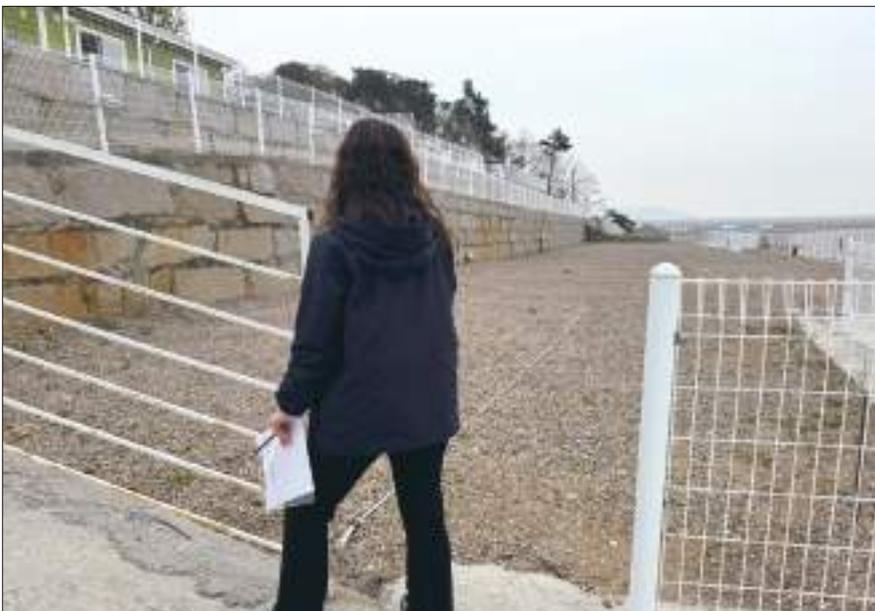
「실종예방 동작감지 센서벨」 지원 사업은 관내 상습 치매어르신 실종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른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안대책이다

강화군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38%이상을 차지하고,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치매어르신 등록현황은 2,260명(강화군 치매안심센터 통계)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성 치매어르신 실종사건 발생 시 소재 확인이 어려워 실종수색 및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주민 생명보호와 직결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관내 상습 실종 치매어르신 대상 보호자 동의·협조를 받고 현관 출입문 차임벨인 동작감지 센서벨을 설치하여 보호자 관리 강화 및 실종사건 발생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주민체감 안전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남규희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치매어르신 실종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동작감지 센서벨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 등 다양한 범죄예방·대응 추진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야영장 12개소 대상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강화군이 다음달 2일까지, 여름철 캠핑 성수기에 대비하여 관내 야영장 1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영장 주요 점검 사항은 ▲태풍·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 안전관리 실태 ▲야영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안전 위생관리 실태 ▲야영장 안전기준(화재예방, 전기가스 사용) 준수 여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공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장치 유무 등이다.

점검 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캠핑 성수기를 맞이하여 군에 찾아오는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야영장 사업주와 함께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금융교육 실시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경제 개념 직접 체험 교육



강화군, 보드게임으로 금융교육 실시

강화군이 지난 27일 강화군 드림스타트 1층 다목적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DS 나눔재단에서 후원하고 시니어 금융협회의 FSS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저축과 투자의 개념 및 디지털금융 용어 등을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통해 경제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 돈의 소중함과 물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아동들이 행복해지는 강화군이 되도록 항상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발전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필수 예방접종 연계사업, 학원 및 학습지 연계 지원, 아동 및 부모 심리상담, 가족영화 관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최백하 기자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도록’ 강화군,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가맹점 22개소 신규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지정(강화군자원봉사센터)

강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2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흥의교회, 강화농업협동조합 선원지점 등 4개소이며, ▲치매안심가맹점은 금화왕돈까스 인천 강화점, 헤어명가 등 18개소로, 지난 9일부터 19일

까지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치매극복 활동 참여 및 치매 관련 정보(리플릿 등) 비치 ▲배회 환자 발견 시 유관기관(112) 신고 등의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치매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23개소의 치매극복선도단체와 65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정해 지역의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안심가맹점은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으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치매안심가맹점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성원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이 가능하며, 연중 모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다양한 곳에서 치매 친화적 강화군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길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어르신 생신잔치 행사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어르신 생신잔치

길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원정연)는 지난 23일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12분의 생신잔치를 열었다.

이번 생신잔치는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르신 생신잔치 축하 사업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사진 촬영, 길상면 보건지소에서 건강 체크,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드리기를 위한 외식을 진행했다.

생신잔치에 참여한 권OO 어르신은 “평범한 날과 다름없이 보내던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원정연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길상면 새마을 지도자, 반찬 나눔 행사 가져

길상면 새마을 지도자, 길사모에 젓갈 5종 전달

길상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30일 독거 어르신을 위한 ‘합동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지도자는 매주 화요일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반찬을 전달하는 길사모(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110만원 상당의 젓갈 5종을 전달했다. 또한, 두 단체 회원 30여 명은 함께 소외된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김남식 회장은 “반찬 나눔 행사로 지역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고,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새마을지도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해 준 길상면 새마을 지도자 및 길사모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길상면 새마을 지도자, 반찬 나눔 행사



CAFE BERRY

very good

빙수·커피·프라페·스무디·마카롱·스콘·케이크·샌드위치



카페 베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4-5 Tel.010.4781.0518
영업시간 11:00~19:00 화·수요일 휴무 #강화카페 #루프탑카페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